

[12] <http://www.tein2.net/>

[13] <http://networks.internet2.edu/hopi/>

중남미 주요국가 정보통신 현황 및 전망

국제협력연구실 DGF-KTC 연구원 박진경
(T. 570-4062, gloria@kisdi.re.kr)

1. 개 요

중남미는 급성장하는 신흥 IT시장이다. 1993년 이후 2001년까지 이 지역 정보통신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 11%이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성장률인 7.6%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2002년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여파와 브라질의 정치혼란으로 8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IT시장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달러 표시 기준이며 자국통화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더욱이 2003년 이후 불안 요소가 누그러지면서 다시 성장세를 타고 있다. 가트너 그룹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중남미 IT시장 규모(가전과 정보통신 부품 제외)는 1258억 달러로 세계 IT시장의 5.7%를 차지하였다. 2007년에는 1809억 달러와 점유율 6.2%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IDC에 따르면 2003년 중남미 IT시장의 규모는 세계시장의 2.5%로 북미(43.8%), 유럽(30.6%), 아시아태평양(19%)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2. 현 황

가. 일반 현황

중남미지역은 오랫동안의 정치적 변화의 과정에서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이 경제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개발계획들을 수립하여 실천해 왔으며, 기존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탈피하여 수입장벽 완화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중남미 지역은 거대한 구매력을 지닌 경제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GDP의 성장세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역내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브라질은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BRICs'라 명명되는 신흥 시장대국의 하나로써 세계 경제의 성장감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의 신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표 1〉 중남미 주요국 일반현황¹⁾

| 국가명 | 인구 (백만명, '03) | 면적 (km ² , '03) | 1인당 GNI (US\$, '03) | GDP (백만US\$, '03) | 평균 GDP 성장률 (%, '90~'03) |
|-----------|------------------|-------------------------------|------------------------|----------------------|----------------------------|
| 아르헨티나 | 38.4 | 2,780,092 | 3,650 | 129,735 | 2.3 |
| 볼리비아 | 9.0 | 1,098,581 | 890 | 8,024 | 3.5 |
| 브라질 | 176.6 | 8,514,047 | 2,710 | 492,338 | 2.6 |
| 칠레 | 15.8 | 756,096 | 4,390 | 72,416 | 5.6 |
| 콜롬비아 | 44.4 | 1,141,568 | 1,810 | 77,559 | 2.3 |
| 코스타리카 | 4.0 | 51,100 | 4,280 | 17,482 | 4.8 |
| 에콰도르 | 13.0 | 272,045 | 1,790 | 26,913 | 1.9 |
| 엘살바도르 | 6.5 | 21,041 | 2,200 | 14,396 | 4.0 |
| 과테말라 | 12.3 | 109,117 | 1,910 | 24,730 | 3.8 |
| 온두라스 | 7.0 | 112,088 | 970 | 6,978 | 3.0 |
| 자메이카 | 2.6 | 10,991 | 2,760 | 7,817 | 0.7 |
| 멕시코 | 102.3 | 1,964,375 | 6,230 | 626,080 | 3.0 |
| 파라과이 | 5.6 | 496,752 | 1,100 | 5,814 | 1.7 |
| 페루 | 27.1 | 1,285,216 | 2,150 | 61,011 | 3.9 |
| 우루과이 | 3.4 | 176,215 | 3,790 | 11,182 | 1.5 |
| 베네주엘라 | 25.5 | 916,445 | 3,490 | 84,793 | 0.5 |
| 국가별 합계/평균 | 493.5 | 19,705,769 | 2,758 | 1,667,268 | 2.8 |

나. 정보통신 현황 및 전망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중국 등과 함께 신 IT전략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정보통신 현황은 〈표 2〉에 나타난 무선전화 가입자 수, 인터넷 회선 수 등의 관련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 정부 모두가 자국의 IT산업의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IT시장의 성장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향후 경제성

1) 자료출처: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 ITU(2004, 10)/World Development Report 1978 ~2005, World Bank(2005, 1)

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국영사업의 민영화, 독립 규제기구 설립 등을 통해 통신 인프라의 현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IT시장은 '03년에 93억 달러 규모이며 향후 연평균 6.5%성장하여 '08년에는 127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브라질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매년 약 30%의 높은 성장을 보여 '03년 8월 3,900만 명을 기점으로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초과하였으며 '03년 말 현재 4,637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표 2〉 중남미 주요국 정보통신 관련 지표 현황²⁾

| 국가명 |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 (명, '03, '02) |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명, '03, '02) |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명, '03, '02) | 정보화지수 (DAI, '02) ³⁾ |
|-------|--|---|--|-----------------------------------|
| 아르헨티나 | 21.88 | 17.76 | 11.20 | 0.53 |
| 볼리비아 | 7.23 | 15.21 | 3.24 | 0.38 |
| 브라질 | 24.05 | 26.36 | 8.22 | 0.5 |
| 칠레 | 22.10 | 51.14 | 27.20 | 0.58 |
| 콜롬비아 | 20.03 | 14.13 | 6.24 | 0.45 |
| 코스타리카 | 25.05 | 11.10 | 19.31 | 0.52 |
| 에콰도르 | 12.24 | 18.92 | 4.60 | 0.41 |
| 엘살바도르 | 11.55 | 17.65 | 8.44 | 0.38 |
| 과테말라 | 7.05 | 13.15 | 3.33 | 0.38 |
| 온두라스 | 4.81 | 4.87 | 2.52 | 0.29 |
| 자메이카 | 16.92 | 53.30 | 22.84 | 0.53 |
| 멕시코 | 15.77 | 29.11 | 11.85 | 0.5 |
| 파라과이 | 4.61 | 29.85 | 2.02 | 0.39 |
| 페루 | 6.71 | 10.61 | 10.39 | 0.44 |
| 우루과이 | 27.96 | 19.26 | - | 0.54 |
| 베네수엘라 | 11.06 | 27.30 | 6.03 | 0.47 |

2) 자료출처: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 ITU(2004, 10)

3) Digital Access Index(DAI): DAI는 전반적인 ICT 접근성 및 사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ITU에서 개발한 지수이다. '정보화'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통신기기 및 서비스 보급률 등의 단순수치를 한 집단이나 국가 정보화의 지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DAI는 통신기구나 인터넷 보급률과 같은 단순 지표들 외에 해당국의 소득,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동시에 참고하여 산출되는 값으로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DAI는 인프라(infrastructure), 이용성(affordability), 지식(knowledge), 품질(quality), ICT 실질 사용량(the ac-

과거 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이르러 G7국가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도 낙후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돌파구로 IT산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스페인어권에 대한 SW, 콘텐츠 진출기지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첫 FTA국가인 칠레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IT강국이며, 지난 2004년 말 대통령 방문 시에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 IT, 서비스 등 포괄적인 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전망이 상대적으로 밝은 국가이다.

중남미 IT 시장의 잠재력은 막대하다.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2002년 말 현재 유선전화의 보급률은 19.8%이며 이동전화는 12.5%, PC는 7.2%, 인터넷은 6.7%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의 자유화 및 민영화, 각국의 정보화정책 추진, 인터넷 보급과 전자상거래 급증, 기업들의 IT도입을 통한 경영효율화에 힘입어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에 대한 선호 및 수요증가, VoIP 등 대체 서비스의 등장, 산악 등 고지대가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이동통신은 유선통신보다 단기간에 IT인프라 구축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을 인식되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시장도 두 자릿수의 고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스페인의 텔레포니카 모바일 등 유럽과 미국계 사업자가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시장 또한 GSM 방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국내 사업자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적다. 그러나 GSM 단말기와 ADSL은 물론 광케이블 시장까지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영역도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유무선 인프라 환경의 급속한 발전은 특히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임이 분명하다. 지금 중남미에서 한창인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면 구축된 인프라 위를 힘차게 질주하게 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병행하여 전자정부 시장도 급성장할 전망이다. 중남미 각국은 e-procurement, 결제통합시스템 등 전자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이 분야의 노하우와 솔루션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남미 대륙에는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내에서 IT분야를 위시하여 일어나고 있는 경제발전의 움직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중남미 지역은 머지않아 세계 IT시장,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도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매력적인 대륙이 될 것이다.

tual usage of ICTs), 5가지 근본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각 집단이나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한다.

참고자료:

- [1] ITU,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2003
- [2] ____, <http://www.itu.int>
- [3] 전자신문, [열린마당] 기회의 땅 '남미 IT시장', 2004. 12
- [4] KISDI 이슈리포트, 『BRICs의 IT현황과 전략적 진출방안』, 2004. 9